

# 척박한 서평문화의 토양에서 일궈낸 값진 열매

일간지 복색선과 차별화된 깊이와 전문성 갖춰야...

'저널리즘 리뷰' 강화해 서평 전문지의 정체성 지켜야

유재천 |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성숙한 비평풍토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 서평 전문지의 존재는 소중하다.

우리 서평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저널리즘 리뷰'의 확대·심화다. 그것은 독자들의

문화선택에 지침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책의 주제와 저자, 그리고

내용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판단을 내리는 일은 출판문화의 발전과 독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긴요하다. 《출판저널》의 기능과 역할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출판저널》이 어느덧 300호를 펴내게 됐다. 얼핏 보면 300호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의아해 할지 모른다. 그러나 척박한 한국 서평문화의 토양 속에서 고사당하지 않고 300호를 펴내게 됐다는 것은 경하해 마지않을 일임에 틀림없다.

이제 《출판저널》은 뿌리를 깊이 내렸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물 때 물을 주고 시들 때 자양분을 뿌려 준 덕택이다. 재정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출판금고의 사명감, 좌절하지 않고 책을 만드는 데 신명을 바쳐온 편집자와 기자들, 흔쾌히 글을 써 준 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저널리즘 리뷰' 정착하지 못한 언론현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3만 5천종의 책이 출판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 만화와 학습참고서를 제외하면 약 2만 3천여종이 된다. 이 많은 종수 가운데 무슨 책이 나왔는지를 독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돼 있다. 더욱이 일반독자들이 책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길은 매우 좁다. 책 광고가 있지만 상업적 메시지이므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더러 종수 또한 한정돼 있어서 책의 선택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요즘 일간지들이 주말이면 출판정보를 4면 내지 8면씩 책선으로 다루고 있어서 갈증을 풀어주고 있다.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일간지들의 책 소개는 몇가지 한계가 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평'(評)보다는 단순한 소개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책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독자들이 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평가가 없는 탓에 독자들의 판단을 돕는 유용한 정보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다. 신문마다 어느 특정한 도서를 일제히 대서특필해주는 경우도 흔하다. 그 책이 필독을 권할 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편집자들의 의견이 일치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독자들이 보기에는 출판사의 로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오해를 살 만하기도 하다. 홍보성이 짙은 책소개가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요즘은 덜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필자가 신문에 난 책소개 기사와 출판사가 신문에 신간과 함께 보낸 보도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같은 내용이 많았다.

또한 특정한 저자의 신간은 거의 자동적으로 소개하는 경향도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문학작품의 경우 더 두드러진다. 그 작품이 어떤 주제를 어떤 시각에서 다뤘으며, 작품성이 어떤지를 떠나 저자의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한다. 출판사의 로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출판기자의 선입관에 따른 글쓰기 탓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베스트셀러가 만들어진다.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의 경우 아직도 '저널리즘 리뷰'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널리즘 리뷰'는 독자들의 문화선택에 지침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기 위한 영역이다. 외국언론의 경우, 문학, 공연예술, 출판 등 각 장르별 '저널리즘 리뷰'가 독자의 문화 선택을 위해 정착돼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 '크리티시즘' 넘은 서평 양산해야

'저널리즘 리뷰'는 독자들의 문화 선택에 지침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서의 경우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그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저자는 그 주제를 다루는 데 적합한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 저자는 그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저자의 그런 시각은 과거 동일한 주제를 다뤘던 저작들과 어떻게 다르며 독자적인 해석이나 관점은 무엇인가? 책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출판사, 페이지 수, 값 등을 밝혀주는 것이다. 이런 정보가 빠진 채 내용을 요약한 책소개는 '리뷰'가 아니라 심하게 말한다면 홍보 메시지에 지나지 않는다.

신문의 출판기사가 모두 '저널리즘 리뷰'의 성격을 지닐 수는 없다. 단순한 출판정보 역시 독자들에게 어떤 책이 출판됐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로서 제 몫을 한다. 그러나 적어도 독자들에게 권할 만큼 가치 있는 책은 '리뷰'를 해줘야 옳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큰 지면을 할애하면서 시각적 효과나 강조하고 흥미유발에 주력하는 제목을 큼지막하게 달아주는 관행은 출판 저널리즘의 정도라 하기 어렵다.

언론의 '저널리즘 리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글 쓰는 사람의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요청된다. 신문의 경우 기자들이 주로 책 소개 기사를 쓰고 있지만 얼마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 사람의 기자가 몇가지 분야의 책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그 기자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현실에 견줘볼 때 분야별 출판 전문기자를 양성해 달라는 요구는 무리일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필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데도 문제는 있다. 비평의 풍토가 성숙되지 않은 탓에 제대로 된 '리뷰'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사에 대한 저자의 불만이 표출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더 본질적인 문제는 외부 필자의 경우 '저널리즘 리뷰'와 '크리티시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주로 학자 가운데서 선택되는 외부 필자는 서평을 '크리티시즘'으로 이해하고 글을 쓰게 됨으로써 일반독자들에게는 난해한 내용이 되고 만다. 언론매체에 실리는 서평은 '크리티시즘'이 아니라 '저널리즘 리뷰'여야 하지만 학자들은 그런 언론매체의 요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출판기자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필자에게 청탁하는 경우 '저널리즘 리뷰'의 글쓰기가 요구하는 바를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출판기자들부터 언론매체의 서평에 대한 인식이 올라야 함은 물론이다.

《출판저널》은 이런 의미에서 유일한 서평 전문매체로 자리잡았다. 《출판저널》은 서평뿐 아니라 출판계 동향 등을 알리고 저자나 저서, 그리고 독자들의 동태나 의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출판전문매체로서도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매호마다 꾸미는 특집은 대단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출판산업의 동향이나 문제점 및 출판정책 등을 다룬 특집도 바람직하지만 출판



서평 전문지는 '저널리즘 리뷰'에 충실해야 한다. 이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출판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진은 한 대형서점의 매장.

장르별 특집은 참으로 유익하다. 편집기획이 돋보인다. 편집자문위원들과 편집자의 기획력을 평가해야 마땅할 것이다.

**일반 독자들을 위한 정보제공에 초점 맞춰야**  
그러나 좀더 향상된 《출판저널》을 위해 몇가지 의견을 말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평을 좀더 '저널리즘 리뷰'답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가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필자들에게 그 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해 서평을 쓰기보다 일반 독자들의 선택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춰 줄 것을 요청하는 일, '저널리즘 리뷰'의 지면을 늘리는 일, 그리고 학술전문서적 위주보다 일반 독자들의 읽을거리에 대한 리뷰에 중점을 두는 일 등이다. 그럼으로써 《출판저널》이 일반독자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출판저널》이 엘리트 위주의 독자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구독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작비의 부담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레이아웃이 단조로운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컬러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실정은 짐작되지만 지금까지 본문은 단일 색을 써서 단조롭게 만드는 것은 너무 도식적이라 식상하기 쉽다. 그 점을 극복하려면 레이아웃을 좀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출판저널》독자의 저변확대가 요청된

다. 이 또한 예산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지만 《출판저널》이라는 매우 유용한 출판정보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된 소수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는 일이 절실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출판금고도 《출판저널》독자의 저변확대가 출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출판저널》과 같은 매체가 이 사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흐뭇한 일이다. 지령 300호를 맞은 《출판저널》이 어떤 바람에도, 또한 어떤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로 굳건히 자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